

# 아르테미스 희진 “이제 진짜 아티스트가 된 것 같아요”

그룹 ‘이달의소녀’ 해산 후 첫 앨범 “재데뷔한 멤버들 보며 부담감 커” “K팝 대표 포부...아이유가 롤모델”

공동 프로듀서(Co-producer) 전희진. 그룹 ‘이달의 소녀’(LOONA·이달소) 출신 희진의 첫 미니앨범 크레디트에 오른 이름이다. 희진은 전 소속사와의 분쟁을 겪고 새 소속사에서 활동을 재개하며 마음가짐부터 달라졌다. 더 이상 플레이어로만 머무르지 않았다. 곡 작업부터 앨범 커버, 티저, 의상 등 사소한 부분까지 손길을 뻗었다. 온전히 자신의 색깔이 녹아있는 앨범을 세상을 내보이는 순간, 희진은 “이제 진짜 아티스트가 된 것 같다”고 했다.

희진의 솔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희진은 매달 새로운 멤버를 공개하는 전략의 이달소의 첫 번째 멤버였다. 2016년 싱글 ‘비비드(VIVID)’가 정식 데뷔곡이다. “이번 앨범이 솔로 컴백인지 데뷔인지 대표님께 직접 여쭙봤어요. 컴백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솔로로 음악방송을 하는 건 처음이지만, 솔로 앨범을 발매했었고 팬들 앞에서 무대를 보여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컴백이 맞는 것 같아요.”

희진의 새로운 출발에 손을 잡은 건 이달소 제작에 참여했던 정병기(제이든 정) 대표다. 정 대표는 이달소가 공중분해 위기에 처하자 희진을 비롯한 이달소 멤버 최리·진솔·김립을 자신이 설립한 모드하우스로 영입했다. 뒤이어 하솔도 합류했다. 다섯 멤버는 이달소 세계관이 이어지는 ‘아르테미스’(ARTMS) 프로젝트로 다시 엮였다. 프로젝트의 첫 발은 이달소 유닛이었던 ‘오드아이씨클(최리·진솔·김립)’이었고, 희진이 솔로로 뒤를 잇는다. 유닛과 솔로로 각자 역량을 펼치고 아르테미스 완전체로 활동할 계획이다.

“책임감이 굉장히 커요. 예전에 앨범을 냈을 때랑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담감이 크죠. 멤버들, 회사 분들과 (앨범 발매를 앞두고) 저녁 식사를 했는데 응원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멤버들이 ‘잘할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라고 하면서 틈틈이 응원을 해주셔서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많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제가 솔로 포문을 잘 열어야겠다는 생각이예요.”

앨범명은 ‘K. 코리아(Korea)’를 뜻한다. 희진은 “내가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이 되겠다는 포부를 담은 것”이라며 “K팝이 지향하는 음악을 담았다. 한국의미를 많이 담으려 앨범 재킷도 버전을 나눴고, 구성품에도 한국적인 요소를 넣었다”고 했다.

타이틀곡 ‘알고리즘(Algorithm)’ 뮤직비디오는 드라마 ‘궁’을 오마주 했다. 궁에 사는 공주인 희진이 K팝 스타를 꿈꾸는 이야기다. 희진의 환복 자태가 시선을 끌고, 궁에서 노트북과 휴대폰을 하는 이색적인 모습이 재미를 더한다. 틱톡을 찍는 공주의 모습부터 궁을 탈출해 만난 오드아이씨클과의 우정, 오디션을 응원하는 하솔의 모습도 담겼다. “오디션을 마친 뒤 제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뮤직비디오가 끝나요. 열린 결말이죠. 뮤직비디오의 결말이 앞으로의 제 활동 모습일 수도 있어요.”

희진의 밝고 맑은 이미지가 특화된 곡이라 새 출발에 알맞기도 하다. 80년대 팝을 주도했던 마돈나, 자비 잭슨, 신디 로퍼 등 아티스트들의 사운드를 K팝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K팝 시장의 주류인 이지 리스닝 계열이다. “대표님이 이 곡을 타이틀로 정말 확고하게 밀었어요. 전 부담감이 크다 보니 ‘이걸로 될까요? 확실하신가요?’라고 되물었죠.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스스로 잘 살릴 수 있는 곡이예요.”

희진은 “요즘은 알고리즘 없이 살 수 없잖아요. 많은 분들의 알고리즘에 제가 존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훗날 콘텐츠 뒷 배경에 깔리는 노래로 유행하는 곡의 척도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배경음으로 사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희진은 ‘알고리즘’을 비롯해 ‘비디오 게임(Video Game)’, ‘노키아(Nokia)’, ‘어디션(Addiction)’까지 총 6곡 중 4곡의 작사에도 참여했다. 새벽에 아식을 먹다가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영감을 받았다. 이달소 앨범에서는 하지 못했던 일이다. 적극적으로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희진의 의견에서 시작했다. “1부터 10까지 모든 것에 관여를 했어요. 대표님이 귀찮아할 정도로요. 앨범 커버도 바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미술에도 관심이 많은 편이라 티저에 폰트도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선택했어요. 의상도 스크랩해서 보여주고요. 뮤직비디오 마지막 신도 바꾸고, 멤버들의 분량을 조금 더 챙기기도 했어요.”

부담감과 책임감이 뒤얽힌 과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성장했다. 희진은 “자립심이 생겼다. 이전에는 시스템도 몰랐고 노래가 주어지는 대로 했다면, 스스로 의견을 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앨범 작업을 하면서 항상 내가 컨셉을 내렸다. 컨셉을 내리기 전까지는 회사가 움직일 수 없었다”며 “그런 부분에서 아티스트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만족도 100%인 앨범은 이제 대중의 평가만 남았다. 이달소 멤버들로 구성된 그룹 오드아이씨클, 루셀블이나 솔로로 데뷔한 추등의 새 출발을 바라보며 곧 다가올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처럼 부담감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잘 해내는 멤버들을 보고 마음을 다잡았다. “수치적으로는 음악방송 1위를 해보고 싶어요. 꿈은 크게 가지는 거니까 빌보드에도 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신감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대중들이 희진이라는 가수를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완성도가 높은 앨범이라는 걸 알



아주셨으면 해요.”

아르테미스 활동의 초석 같은 앨범이긴 하지만, 앞으로 솔로 가수로도 활발하게 활동할 계획이다. 희진은 솔로 가수로서 자신의 강점을 “다채로움”이라고 평했다. 그는 “대중에게 팔레트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힙합을 좋아해서 K팝에 힘을 몇 방울 섞어서 재해석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다.

“롤모델이 원래 없었어요. 저의 색깔은 스스로가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컸거든요. 요새는 다른 가수들에게 영감이 올 때도 있더라고요. 연기 레슨도 하고 있는데 연기를 배우고 싶다는 이유도 아이유 선배님이었어요.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생각이 있었는데 아이유 선배님은 항상 해내는 분이잖

아요. 자연스럽게 아이유 선배님이 롤모델이 된 것 같아요. 그런 가수가 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웃음)

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은 확고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내실을 다지다가 이달소로 모일 날을 기다리고 있다. 모두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고 미래를 위한 준비다. “러브콜이 왔었지만 한두 명 정도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멤버들이 최대한 한 곳에 모이자는 의지가 컸어요. 우리를 유일하게 모아주는 곳이 모드하우스였고요. 저희는 언제든지 완전체를 열어두고 있어요. 대표님도 긍정적이고, 팬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회가 된다면 12명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뉴진스 ‘겟 업’, ‘빌보드200’ 14주 연속 진입...K팝 걸그룹 두번째 최장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미니 2집 ‘겟 업(Get Up)’이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새 기록을 쓸 지 관심이 다. 10월 31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뉴진스 ‘겟 업’은 4일 차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98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84위에서 14계단 하락했으나 14주 연속 진입했다. 이 앨범은 해당 차트에 데뷔하자마자 정상에 올랐다.

### 보이그룹까지 통틀어 4세대 그룹 중에선 세 번째로 장기 진입

뉴진스는 이 차트에서 K팝 걸그룹 두 번째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겟 업’은 ‘빌보드 200’에서 가장 오래 머문 4세대 K팝 걸그룹 앨범 기록을 자체 경신 중이다. K팝 걸그룹 전 세대를 통틀어 현재 ‘빌보드 200’에 가장 오래 머문 K팝 걸그룹 음반은 ‘블랙핑크’ 정규 1집 ‘디 앨범’(THE ALBUM)이다. 해당 차트에 총 26주간 머물렀다. ‘겟 업’은 지난 주까지 블랙핑크 정규 2집 ‘본 핑크’와 13주로 타이 기록이었는데, 이번엔 단독으로 2위가 됐다.

보이그룹·걸그룹을 통틀어 4세대 그룹 중에선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 미니 4집 ‘미니스드 투: 서스테이션 차일드’(minisode 2: Thursday’s Child)와 함께 타이를 이뤘다.

4세대 그룹 중에선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미니 5집 ‘이름의 장: 템테이션

(TEMPTATION)’이 19주 연속 진입으로 가장 오래 머물렀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스키즈)의 정규 3집 ‘파이브 스타’(5-Star)가 16주 연속 진입으로 뒤를 잇고 있다.

뉴진스 ‘겟 업’은 빌보드 내 세부 앨범 차트에서도 선전하고 있다.

10주간 정상을 차지한 ‘빌보드 월드 앨범’에선 이번 주까지 3주간 2위를 지켰다. 또 톱 앨범 세일즈에선 17위, 톱 커런트 앨범 세일즈에선 12위에 올랐다.

수록곡들은 빌보드 주요 차트 중 하나인 ‘글로벌 200’에서 장기간 머물고 있다.

선공개곡이자 트리플 타이틀곡 중 한국인 ‘슈퍼 사이’가 56위를 차지하며 16주간 머물렀다.

또 다른 타이틀곡 ‘ETA’는 156위를 차지하며 14주간 진입했다.

## 정국, ‘3D’ 美 ‘핫100’ 역주행

### 18계단 오른 75위...협업곡 ‘투 머치’ 44위 데뷔



신드롬 걸그룹 ‘뉴진스’ 외에도 ‘방탄소년단’(BTS) 등 K팝 팀들이 미국 빌보드 다수의 차트에서 호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10월 31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11월 4일 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 정국의 두 번째 공식 솔로 싱글 ‘3D(feat. Jack Harlow)’가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전주 대비 18계단 오른 75위로 4주 연속 차트 진입했다.

앞서 빌보드가 트위터 등을 통해 예고한 것처럼 정국이 지난달 20일 공개한 ‘투 머치(TOO MUCH)’는 이번 주 차트에서 44위로 데뷔했다.

호주 래퍼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 영국 래퍼 센트럴 시(Central Cee)와 협업한 곡이다.

이에 따라 정국은 ‘핫110’에서 1위를 차지한 공식 첫 솔로 싱글 ‘세븐(Seven)(feat. Latto)’을 비롯 솔로 아티스트로서 총 5개 곡을 이 차트에 올렸다.

이는 싸이가 세운 K-팝 솔로 아티스트의 ‘핫 100’ 최다 진입 타이 기록이다.

이와 함께 ‘투 머치’는 빌보드 세부 차트에서도 선전했다. ‘디지털 송 세일즈’ 1위로 직행했고 ‘글로벌(미국 제외)’ 10위, ‘글로벌 200’ 11위에 자리했다. 이 외에 ‘글로벌 200’에서는 ‘세븐’ 6위, ‘3D’ 8위, ‘글로벌(미국 제외)’에서는 ‘세븐’과 ‘3D’가 각각 2위와 7위에 포진했다. 정국은 오는 3일 첫 솔로 앨범 ‘골든’을 발매하는

데, ‘세븐’ ‘3D’ ‘투 머치’가 확실한 예열을 해주고 있다.

이와 별개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는 위의 첫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가 160위에 랭크되며 7주 연속 차트인했다. ‘레이오버’는 ‘톱 커런트 앨범’ 13위, ‘톱 앨범 세일즈’ 18위에 자리했다.

이 앨범의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Slow Dancing)’은 ‘글로벌(미국 제외)’ 30위, ‘글로벌 200’ 54위에 올랐다.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FACE)’는 ‘월드 앨범’ 12위,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는 ‘글로벌(미국 제외)’ 59위, ‘글로벌 200’ 99위로 나란히 31주 연속 장기 흥행 중이다.

이와 함께 그룹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투바투)의 정규 3집 ‘이름의 장: 프리폴(FREEFALL)’은 ‘빌보드 200’에서 19위를 차지했다. 지난 주 ‘빌보드 200’에 3위로 진입한 뒤 2주 연속 상위권에 올랐다.

한편, 이번 주 ‘핫100’ 1위는 미국 팝 슈퍼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크루엘 서머’가 차지했다. 지난 주에 이어 2주 연속 정상이었다. 스위프트가 지난 2019년 발매한 정규 7집 ‘러버’ 수록곡으로, 공개 4년 만인 지난 주 정상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따라 스위프트는 ‘핫100’ 1위에 총 10곡을 올리는 기록을 썼다. 또 ‘크루엘 서머’는 ‘글로벌 200’에선 지난 주 2위였는데 이번엔 1위로 치고 올라왔다.

미국 펑크 록 밴드 ‘블링크 182(Blink 182)’의 ‘원 모어 타임...(One More Time...)’이 이번 주 ‘빌보드 200’ 1위로 데뷔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롤링스톤스’가 18년 만에 내놓은 정규 음반 ‘해커니 다이아몬드(Hackney Diamonds)’는 ‘빌보드 200’에 3위로 데뷔하며 견제를 과시했다.

이 음반은 최근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 톱 100에선 1위를 차지했다.

## ‘베베’, ‘스우파2’ 우승...리더 바다 “모든 걸 쏟아부었던 시간”

###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잼 리퍼블릭’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 들어 올릴

댄스 크루 ‘베베(BEBE)’가 엠넷 댄스 크루 서바이벌 ‘스트릿 우먼 파이터2’(‘스우파2’)에서 우승했다.

베베는 지난달 31일 생방송된 ‘스우파2’ 파이널 무대에서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잼 리퍼블릭(JAM REPUBLIC)’을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베베는 크루곡 퍼포먼스 투표(20%반영) 190점과 생방송 문자 투표(80% 반영) 800점 만점을 받아 총점 990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베베는 상금 5000만원과 크루 다이어 링을 부상으로 받았다.

베베는 이날 첫 번째 라운드 ‘글로벌 아티스트 미션’에서 카우걸 컨셉으로 세련된 안무

를 선보였다. 음악은 바베이도스 출신 팝스타 리애나의 ‘카키니스(러브 잇)(Cockiness(love it))’와 ‘S&M’을 택했다.

두 번째 ‘엔딩 크레디트 미션’에선 예(카네이웨스트)의 ‘프라다이스 갓(Praise god)’, DJ 스테이크의 ‘런 잇(Run it)’을 배경음악으로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

베베 리더 바다는 “모든 걸 쏟아부었던 시간들이었다. 돌이켜보면 모든 무대가 소중했고 정말 영광이었다”며 ‘스우파2’에 참여한 크루들의 이름을 거명했다. 또 “맛있는 무대를 만들어주시는 제작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모님들께 자랑스러운 딸들이 되고 싶어서 출연했는데 약속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다. 키가 175cm로 시원시원한 동작이 인상적인 바다는 과거 같은 크루 후배 멤버였던 원밀리언 레디에게 ‘노 리스펙트 약자 지목 배틀’에서 말한 “넌 아직도 나한테 중3이야”를 유행시키는 등 인기를 누렸다.

이날 2위는 잼 리퍼블릭, 3위는 원밀리언(1MILLION), 4위는 마네킨(MANNEQUEEN)이었다.